

전남도, 370억 들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

첨단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

교통약자 보호·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역량 집중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37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 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특히 전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보호구역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03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방지를 위한

차선이탈 방지 장치 692대도 지원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1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14개소, 마을진입로 과속 방지시설 54개소, 횡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13개소 등 최첨단 안전시설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보행시간 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교통약자 등)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해 보행시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136억 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5개소를 비롯해 회전교차로 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 81개소, 시야 확보 표지판 230개 등을 설

치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북구, 취약계층 약물 오남용 관리 나선다

북구↔북구 약사회 다제약물관리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취약계층의 약물 복용 관리를 위해 북구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전문성 있는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문인 북구청장과 강형철 북구 약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및 북구 약사회 소속 약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늘 체결된 협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다제약물관리사업 기본정보 및 데이터 공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송현근 기자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복용 중인 약 종류가 15종이 넘는 노인에게 안전한 복약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의약품에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가 직접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복약 상담, 기한 경과 약물 회수, 처방 조정 안내 등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체기능이 약한 취약계층이 효과 없거나 중복되는 약물을 복용하여 생기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북구 약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요양시설 등 15개 시설 유형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집중 안전 점검이 이날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남구는 안전 점검 내실화를 위해 박정환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3개팀 13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안전 점검에 투입하는 인원은 59명에 이른다.

광주 남구, 관내 15개 시설유형 61일간 안전 점검

6월 13일까지 공동주택 등 78곳 대상... 위험요인 제거

남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관련 언론 기사와 주요 사고 분석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점 점검 대상으로 20개 시설 유형에 대한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세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관내 현 상황에 해당하는 15개 시설 유형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점검 대상

은 전통시장 2곳과 공동주택 10곳, 요양시설 5곳, 자동차 정비소 6곳, 숙박시설 13곳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에서 필수 점검 대상으로 통보한 시설 15곳까지 총 78곳이다. 남구는 안전 점검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설 관계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현장을 방문해 세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임채일 기자

특히 점검에 따른 불편 사항 최소화화 안전 점검의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 드론 등 첨단 기술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해당 시설의 안전도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 결과를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 시정 조치와 보수·보강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마을 BI(Brand Identity), 문화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마을과 골목,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서구 마루동)에서 오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사회적경제 기업 이해를

서구, 사회적경제 기업가 성장 돕는다

로컬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18일까지 선착순

위한 기초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을 위한 심화 교육 ▲선배 기업가 특강 등으로 이뤄진다. 또 아카데미 과정 이후 참여자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마을

공동체·마을활동가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주민 2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062-360-7166)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rhappy@korea.kr)으로 하면 된다.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사회적

경제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통해 주민의 사회적경제 인식 향상 교육과 기업 간 협업 촉진 프로그램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광주시, 국토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

추진배경·운항노선·운항일정·항공기종 등 반영해 신청서 제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5일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취항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폐쇄기간이 7월까지 3개월간 재연장되고 로드맵 발표도 지연됨에 따라 이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따른 대체 공항으로서 시민 항공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 관광업계 생존권 위협 해소를 위한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다. 신청서에는 이 같은 추진배경과 함께 항공기 운항노선, 운항일정, 운항규모, 항공기 기종 등 운항개요가 담겨있다. 운항일정은 2025년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운항노선은

광주~울란바토르(몽골), 광주~나트랑(베트남), 광주~다낭(베트남), 광주~엔지(중국), 광주~장자제(중국) 등 노선이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가능 시간은 국내선 운항시간을 고려해 아침과 저녁 각 출발 1편, 도착 1편으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가 국제선 임시취항을 요구하는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검역, 세관, 출입국 관리(CIQ) 등에 관한 협의 기간을 거쳐 항공안전 확보 가능 여부와 공항 운영 적정성을 판단해 광주시에 국제선 임시 운항 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취항 허가 승인을 해주면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국제선 관제라인 등 시설 정비 후 항공사와 함께 국토부에 항공 운항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도일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맞춤형 중독 폐해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독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월별로 교육을 나눠 진행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선택을 알려주세요”

동구, 아동·청소년 대상 중독 예방 교육 나서

이달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약물(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급 학교

와 청소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2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약물 및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PPT와 영상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중심의 방식으로, 아동

들이 쉽고 흥미롭게 중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중독 폐해 예방 교육을 펼쳤다. 중독의 개념을 담은 동화책 시청과 함께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건강한 약물 사용에 대한 약속 활동으로 진행,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오철수 기자

